

##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3년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9% 감소, 전월대 비 1.2% 증가

○ 2013년 2월 생산은 공공행정, 건설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광공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함.

－ 제조업 생산은 화학제품(0.3%), 의료정밀광학(6.1%)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16.5%), 기계장비(-20.7%), 금속가공(-17.5%)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9.8% 감소(전월대비 1.2%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 및 사회복지(5.0%), 출판·영상·방송통신(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2.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4.7%), 금융 및 보험(-1.4%), 부동산 및 임대(-3.3%)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보험(전월대비 1.7% 증가).

○ 2013년 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8.2%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7%)는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4%),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2.6%)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8% 증가(전월대비 0.1% 감소)함.

－ 설비투자는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8.2% 감소(전월대비 6.5% 증가)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전월대비 7.0%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발전, 기계설치 등에서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46.4% 감소함.

- 2013년 2월 동행종합지수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0.5%, 0.3%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 광공업생산지수는 감소했으나 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1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소비자기대지수 등은 증가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1p 하락함.

◆ 2013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3% 상승(생활물가지수 0.8% 상승)

- 2013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2010=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2%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여 2012년 11월의 1.6% 상승 이후 5개월 연속 1%대 상승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1.1%), 교통(-0.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0.1%) 부문은 하락하였고, 주택·수도·전기·연료(3.8%), 의류 및 신발(3.2%), 교육(1.6%), 음식 및 숙박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0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2월	2월p	
생산	광공업 생산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15.3	-9.3(-0.8)
	제조업 생산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5.7	-9.8(-1.2)
	출하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13.8	-9.0(-1.0)
	내수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11.8	-9.5(-0.4)
	수출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6.3	-8.4(-1.8)
	서비스업생산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6.2	0.0(1.7)
소비	소비재 판매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5.5	1.8(-0.1)
투자	설비투자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27.3	-18.2(6.5)
물가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3.0	2.4	1.6	1.7	2.2	3.0	1.3(-0.2)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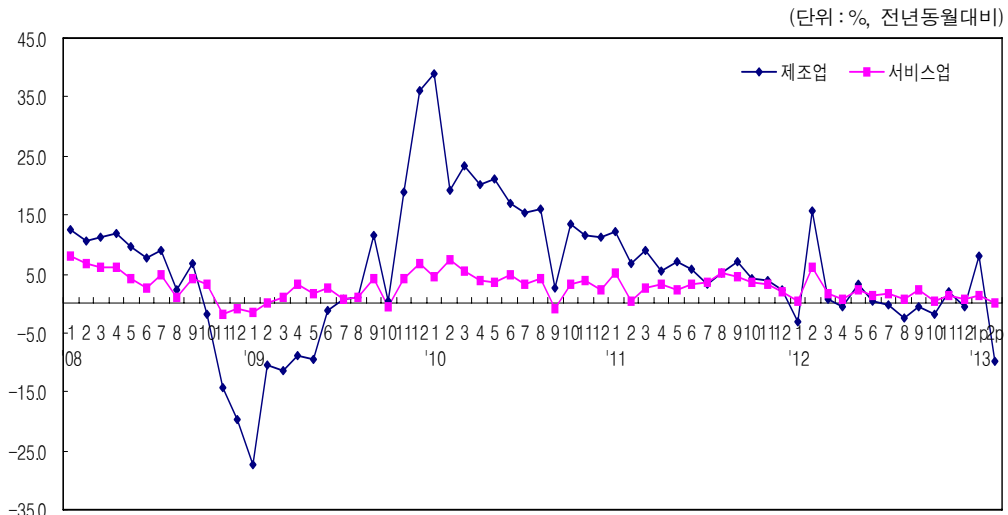
3) 물가상승률은 2013년 3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1.4%)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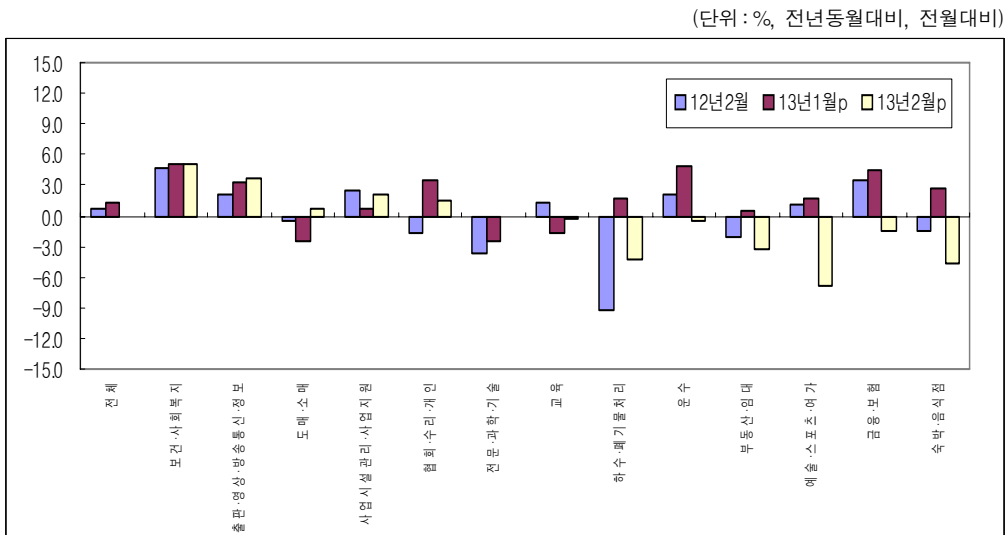
- 2013년 3월 생활물가지수는 106.9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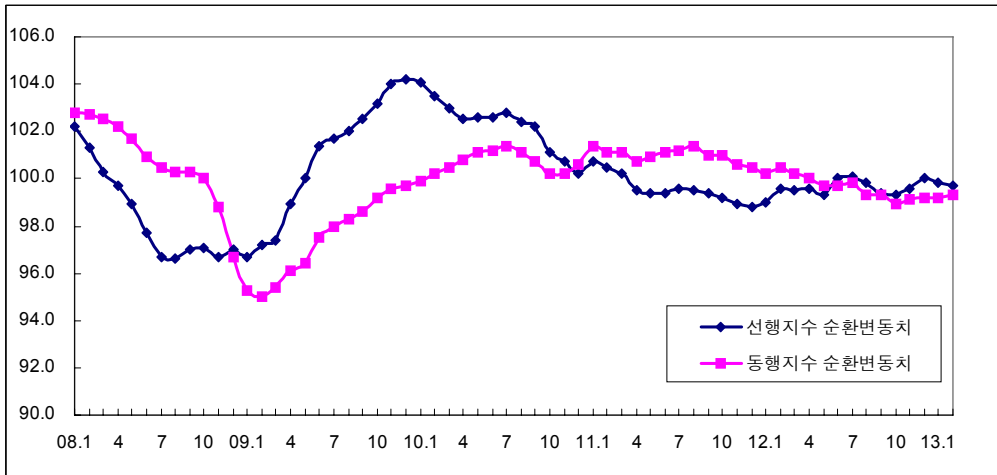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2. 3), 『2013년 2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하락

- 2013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5,09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17천 명(0.9%)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738천 명으로 115천 명(0.8%) 증가하였고, 여성은 10,353천 명으로 102천 명(1.0%) 증가함.
- 2013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9.9%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71.9%)은 전년동분기대비 0.4%p, 여성(48.3%)은 전년동분기대비 0.2%p 하락함(그림 4 윗그림 참조).
- 2013년 1/4분기 중 고용률은 57.7%로 전년동분기대비 0.1%p 하락함.
  - 남성의 고용률은 69.2%로 전년동분기대비 0.3%p 하락하였으며, 여성의 고용률은 46.7%로 전년동분기와 동일한 수준임(그림 4 아랫그림 참조).
- 2013년 1/4분기 중 취업자는 24,184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57천 명(1.1%)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18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23천 명(0.9%)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004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35천 명(1.4%)이 증가함(그림 5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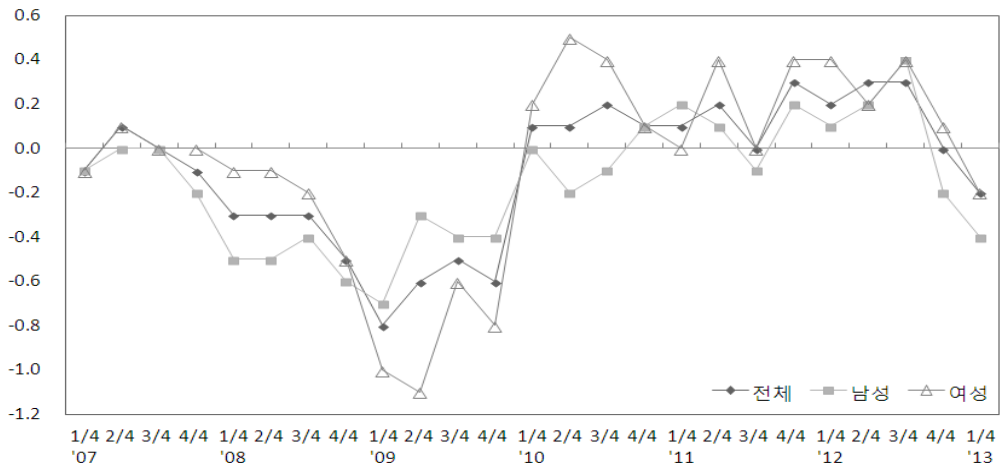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경제활동인구	25,202 (1.6)	24,873 (1.6)	25,210 (1.2)	25,844 (1.6)	25,760 (1.9)	25,526 (1.3)	25,091 (0.9)	24,973 (0.6)	25,397 (0.7)
참가율	61.1	60.1	60.9	62.3	61.8	61.1	59.9	59.6	60.5
취업자	24,462 (2.0)	23,927 (2.0)	24,265 (1.8)	25,003 (1.8)	24,989 (2.1)	24,804 (1.4)	24,184 (1.1)	23,984 (0.8)	24,514 (1.0)
고용률	59.4	57.8	58.6	60.2	60.0	59.4	57.7	57.2	58.4
실업자	740	947	945	841	770	722	907	990	883
실업률	2.9	3.8	3.7	3.3	3.0	2.8	3.6	4.0	3.5
비경제활동인구	16,014 (0.3)	16,495 (0.6)	16,205 (1.3)	15,669 (0.7)	15,904 (0.4)	16,258 (1.5)	16,831 (2.0)	16,953 (2.5)	16,56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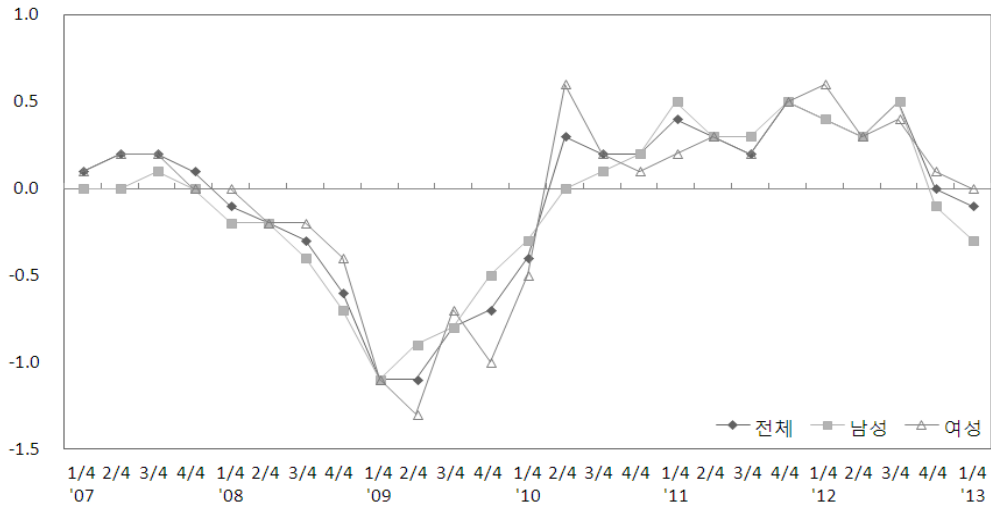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3. 4), 『2013년 3월 고용동향』.

- 2013년 1/4분기 중 실업자는 90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0천 명(-4.2%)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6%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55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천 명(-1.3%), 여성 실업자는 35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3천 명(-8.6%) 감소함.
  - 실업률은 남성이 3.8%로 전년동분기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성은 3.4%로 전년동분기대비 0.3%p 하락함.

〔그림 4〕 성별 참가율(위)과 고용률(아래)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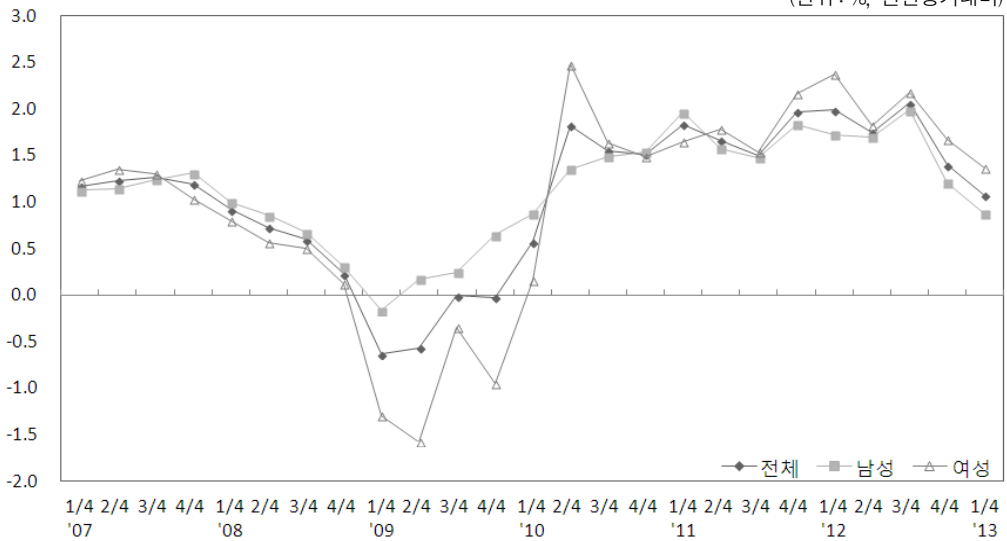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3년 1/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83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36천 명(2.0%) 증가함.
  -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758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6천 명(2.6%)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1,07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90천 명(1.7%) 증가함.

- 2013년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94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천 명 감소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75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6천 명(-5.7%) 감소,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46천 명으로 118천 명(2.9%) 증가함.

◆ 건설업 및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전년동분기대비 감소

- 2013년 1/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19천 명, 3.0%)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58천 명, 3.1%)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64천 명, -3.7%), 전기·운수·통신·금융업(-12천 명, -0.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7천 명, -0.7%) 등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산업	24,462 ( 2.0)	23,927 ( 2.0)	24,265 ( 1.8)	25,003 ( 1.8)	24,989 ( 2.1)	24,804 ( 1.4)	24,184 ( 1.1)	23,984 ( 0.8)	24,514 ( 1.0)
농림어업	1,521 (-1.5)	1,176 (-2.6)	1,363 (-6.3)	1,713 (-1.4)	1,706 ( 0.1)	1,518 (-0.2)	1,167 (-0.7)	1,094 (-1.4)	1,368 ( 0.3)
제조업	4,056 (-1.8)	4,037 (-2.5)	4,018 (-2.5)	4,061 (-1.6)	4,126 ( 2.1)	4,196 ( 3.5)	4,156 ( 3.0)	4,139 ( 1.9)	4,141 ( 3.1)
건설업	1,832 ( 4.0)	1,721 ( 4.8)	1,744 ( 4.4)	1,807 ( 1.9)	1,772 ( 1.0)	1,792 (-2.2)	1,656 (-3.7)	1,604 (-5.6)	1,693 (-2.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42 ( 1.8)	5,571 ( 1.8)	5,532 ( 1.5)	5,596 ( 2.6)	5,610 ( 2.1)	5,603 ( 1.1)	5,534 (-0.7)	5,539 (-0.5)	5,453 (-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486 ( 3.1)	8,398 ( 3.7)	8,572 ( 4.1)	8,820 ( 3.4)	8,772 ( 3.5)	8,682 ( 2.3)	8,656 ( 3.1)	8,600 ( 3.3)	8,834 ( 3.0)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11 ( 5.5)	3,011 ( 4.5)	3,022 ( 4.8)	2,991 ( 2.0)	2,990 (-0.4)	2,998 (-0.4)	2,999 (-0.4)	2,994 (-0.4)	3,009 (-0.4)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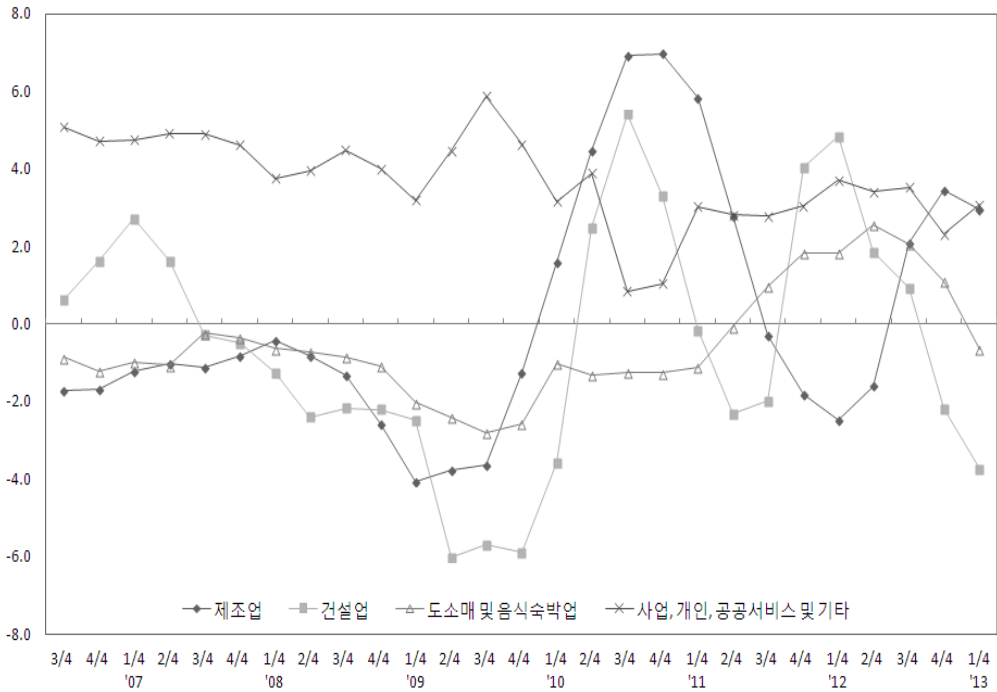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3. 4), 『2013년 3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임시·일용 근로자 감소 지속**

○ 2013년 1/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578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1천 명(-1.1%)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60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29천 명(1.9%)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379천 명으로 554천 명(5.1%)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762천 명으로 152천 명(-3.1%) 감소하였음. 한편 일용근로자는 1,465천 명으로 73천 명(-4.8%)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임(그림 7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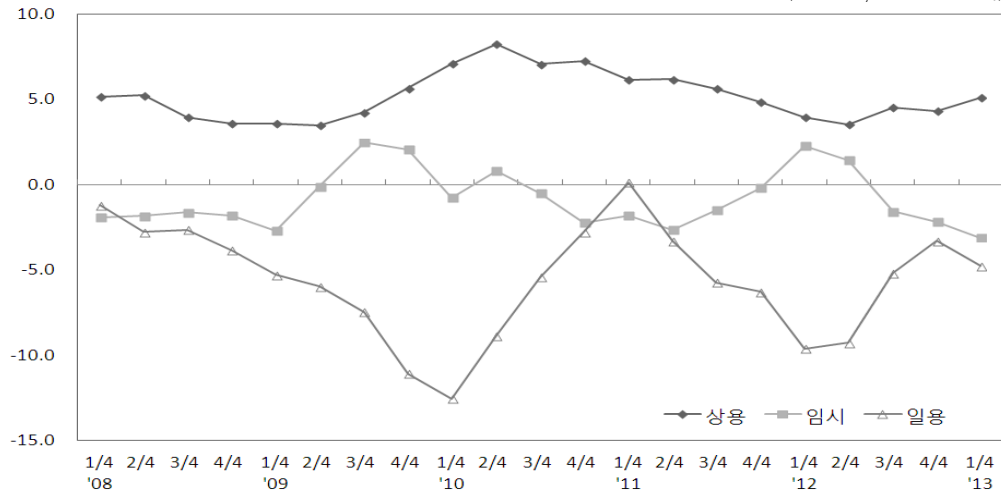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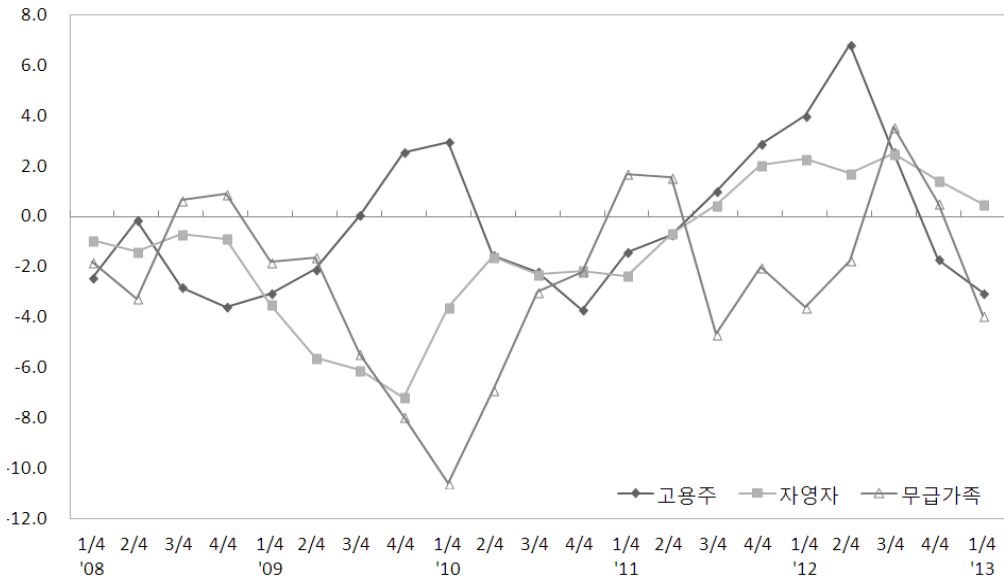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체	24,462 ( 2.0)	23,927 ( 2.0)	24,265 ( 1.8)	25,003 ( 1.8)	24,989 ( 2.1)	24,804 ( 1.4)	24,184 ( 1.1)	23,984 ( 0.8)	24,514 ( 1.0)
비임금근로자	6,878 ( 1.5)	6,650 ( 1.6)	6,844 ( 0.9)	7,154 ( 2.1)	7,154 ( 2.7)	6,917 ( 0.6)	6,578 (-1.1)	6,491 (-1.0)	6,771 (-1.1)
자영업주	5,639 ( 2.3)	5,548 ( 2.8)	5,678 ( 2.2)	5,830 ( 3.1)	5,823 ( 2.5)	5,672 ( 0.6)	5,520 (-0.5)	5,476 (-0.3)	5,631 (-0.8)
무급가족종사자	1,239 (-2.0)	1,102 (-3.6)	1,166 (-5.0)	1,324 (-1.7)	1,331 ( 3.6)	1,245 ( 0.5)	1,059 (-3.9)	1,015 (-4.8)	1,140 (-2.2)
임금근로자	17,585 ( 2.2)	17,277 ( 2.1)	17,421 ( 2.1)	17,849 ( 1.6)	17,835 ( 1.8)	17,887 ( 1.7)	17,606 ( 1.9)	17,493 (1.6)	17,743 ( 1.8)
상용근로자	10,820 ( 4.8)	10,825 ( 4.0)	10,899 ( 3.4)	11,059 ( 3.5)	11,216 ( 4.5)	11,288 ( 4.3)	11,379 ( 5.1)	11,336 ( 4.9)	11,510 ( 5.6)
임시근로자	5,042 (-0.2)	4,914 ( 2.3)	4,997 ( 4.5)	5,114 ( 1.4)	4,992 (-1.6)	4,933 (-2.2)	4,762 (-3.1)	4,725 (-3.1)	4,769 (-4.6)
일용근로자	1,723 (-6.3)	1,538 (-9.6)	1,525 (-12.3)	1,675 (-9.3)	1,627 (-5.2)	1,666 (-3.3)	1,465 (-4.8)	1,431 (-7.1)	1,465 (-4.0)
36시간 미만	3,217 ( 4.1)	3,313 ( 2.1)	3,332 ( 3.0)	3,284 ( 2.3)	4,722 (-44.2)	3,219 ( 0.0)	5,563 (67.9)	9,964 (197.8)	3,354 ( 0.7)
36시간 이상	20,937 ( 1.5)	20,081 ( 1.7)	20,611 ( 1.4)	21,425 ( 1.7)	19,770 (28.2)	21,271 ( 1.6)	18,099 (-9.9)	13,414 (-32.5)	20,848 ( 1.2)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3. 4), 『2013년 3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위) 및 비임금근로자(아래)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3년 1/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56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250천 명(67.9%)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8,099천 명으로 1,981천 명(-9.9%) 감소함.
  -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급증은 2013년 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기간이 설 연휴 기간과 일부 겹친 데 따른 것임.

◆ 대졸 이상 실업률 전년동분기 대비 상승

- 2013년 1/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8.4%, 0.2%p) 및 30대(3.3%, 0.1%p)에서 상승하였고 40대(2.1%, -0.3%p) 및 60세 이상(3.4%, -1.0%p)에서 하락하였음. 한편 50대(2.3%, 0%p)의 경우 전년동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교육정도별 실업률의 경우 전년동분기대비 중졸 이하(3.3%, -0.7%p)와 고졸(3.7%, -0.4%p)에서는 하락한 반면 대졸 이상(3.7%, 0.3%p)에서 상승함.
- 2013년 1/4분기 중 전체 실업자 907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6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천 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45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4천 명 감소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체	740 (2.9)	947 (3.8)	945 (3.7)	841 (3.3)	770 (3.0)	722 (2.8)	907 (3.6)	990 (4.0)	883 (3.5)
15~29세	292 (7.1)	346 (8.2)	347 (8.3)	341 (8.1)	283 (6.8)	284 (7.0)	343 (8.4)	371 (9.1)	346 (8.6)
30~39세	171 (2.9)	190 (3.2)	202 (3.4)	188 (3.2)	166 (2.8)	162 (2.7)	195 (3.3)	204 (3.5)	187 (3.2)
40~49세	131 (1.9)	164 (2.4)	161 (2.4)	135 (2.0)	133 (2.0)	122 (1.8)	143 (2.1)	142 (2.1)	157 (2.3)
50~59세	94 (1.8)	124 (2.3)	134 (2.5)	112 (2.0)	123 (2.2)	102 (1.8)	127 (2.3)	139 (2.6)	122 (2.2)
60세 이상	53 (1.8)	124 (4.4)	101 (3.4)	66 (2.0)	65 (1.9)	52 (1.6)	99 (3.4)	133 (4.6)	72 (2.3)
중졸 이하	108 (2.1)	187 (4.0)	159 (3.3)	112 (2.2)	106 (2.1)	98 (2.0)	148 (3.3)	184 (4.2)	113 (2.4)
고졸	349 (3.5)	408 (4.1)	407 (4.1)	356 (3.5)	350 (3.4)	321 (3.2)	367 (3.7)	381 (3.8)	349 (3.5)
대졸 이상	284 (2.8)	352 (3.4)	379 (3.6)	373 (3.5)	314 (3.0)	303 (2.9)	392 (3.7)	424 (4.0)	421 (3.9)
취업무경험 실업자	44	58	55	48	36	39	61	75	60
취업유경험 실업자	696	889	890	793	734	683	845	915	823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3. 4), 『2013년 3월 고용동향』.

(배기준,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3년 1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6.6% 하락

- 2013년 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6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3,390천 원) 6.6% 하락함.
  - 2013년 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특별급여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6.6% 감소한 3,343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4.6% 상승해 2,568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37.4% 하락하여 598천 원을 기록한 반면,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5.9% 상승하여 177천 원을 기록함.
    - ※ 설날효과(설날이 2013년은 2월, 2012년은 1월)로 인해 특별상여금 지급일이 2월로 변경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하여 임금총액이 하락함. 2월에는 다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0% 상승한 1,449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3년 1월 실질임금은 7.9% 하락함.
- 2013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7.9% 하락함(그림 8 참조).
  - 2013년 1월 명목임금 감소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크게 감소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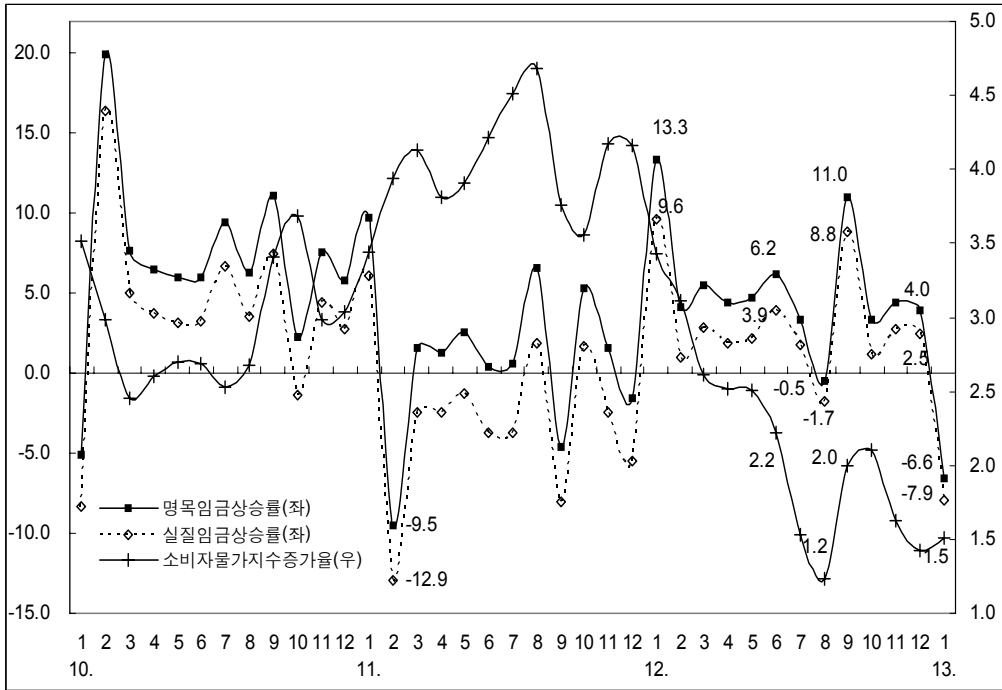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100.0)

		2009	2010	2011	2012	2013	
						1월	1월
전체 근로자		2,636	2,816	2,844	2,995	3,390	3,168
임금총액		( 2.6)	( 6.8)	( 1.0)	( 5.3)	(13.3)	( -6.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63	3,047	3,019	3,178	3,579	3,343
		( 2.2)	( 6.4)	(-0.9)	( 5.3)	(13.2)	( -6.6)
	정액급여	2,139	2,234	2,341	2,470	2,456	2,568
		( 4.0)	( 4.5)	( 4.8)	( 5.5)	( 6.4)	( 4.6)
	초과급여	175	196	179	181	167	177
		(-2.2)	(12.2)	(-8.4)	( 1.0)	( 1.6)	( 5.9)
	특별급여	550	617	498	527	957	598
		(-2.8)	(12.3)	(-19.3)	( 5.8)	(38.8)	(-37.4)
임시·일용근로자		1,073	1,056	1,215	1,293	1,341	1,449
임금총액		( 1.9)	(-1.6)	(15.1)	( 6.4)	(15.4)	( 8.0)
소비자물가지수		97.1	100.0	104.0	106.3	105.7	107.3
		( 2.8)	( 2.9)	( 4.0)	( 2.2)	( 3.4)	( 1.5)
실질임금증가율		-0.1	3.8	-2.9	3.1	9.6	-7.9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1월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하락

○ 2013년 1월 기준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이 하락함.

- 2013년 1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3.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0%), 금융 및 보험업(-10.6%), 제조업(-5.9%) 등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크게 하락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2013	
				1월	1월
전 산업	2,816 ( 6.8)	2,844 ( 1.0)	2,995 ( 5.3)	3,390 (13.3)	3,168 ( -6.6)
광업	3,000 ( 7.3)	3,309 (10.3)	3,470 ( 4.9)	3,856 ( 9.6)	3,858 ( 0.0)
제조업	2,985 ( 9.1)	3,034 ( 1.6)	3,221 ( 6.1)	3,915 (20.3)	3,684 ( -5.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 7.0)	5,482 ( 0.5)	5,388 (-1.7)	4,745 ( 0.0)	4,436 ( -6.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 5.2)	2,488 ( 1.9)	2,654 ( 6.7)	2,787 (10.9)	2,718 ( -2.5)
건설업	1,944 ( 7.9)	2,181 (12.2)	2,273 ( 4.2)	2,486 ( 8.2)	2,486 ( 0.0)
도매 및 소매업	2,769 ( 7.1)	2,942 ( 6.3)	3,122 ( 6.1)	3,401 ( 9.7)	3,140 ( -7.7)
운수업	2,381 ( 5.4)	2,393 ( 0.5)	2,589 ( 8.2)	2,632 (16.5)	2,504 ( -4.9)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 5.0)	1,653 (13.0)	1,738 ( 5.2)	1,784 ( 4.1)	1,741 ( -2.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 4.7)	3,692 ( 9.1)	3,851 ( 4.3)	4,226 (11.0)	3,672 (-13.1)
금융 및 보험업	4,680 ( 4.7)	4,771 ( 1.9)	4,988 ( 4.6)	5,796 ( 9.4)	5,180 (-1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 4.3)	2,017 ( 2.6)	2,194 ( 8.8)	2,348 (10.5)	2,227 ( -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 6.9)	3,870 (-2.2)	4,112 ( 6.3)	4,374 (17.7)	3,895 (-11.0)
사업서비스업	1,848 ( 8.2)	1,700 (-8.0)	1,789 ( 5.3)	1,828 ( 7.6)	1,835 ( 0.4)
교육서비스업	3,157 ( 1.4)	2,985 (-5.4)	3,123 ( 4.6)	3,860 (11.3)	3,731 ( -3.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 2.4)	2,490 (-4.0)	2,608 ( 4.7)	2,785 ( 9.5)	2,689 ( -3.4)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 0.9)	2,130 ( 1.1)	2,211 ( 3.8)	2,369 ( 5.0)	2,399 ( 1.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 4.0)	2,185 ( 3.9)	2,228 ( 2.0)	2,489 (10.1)	2,224 (-10.6)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1월 사업체규모별 전체에서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하락

○ 2013년 1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모두 하락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013년 1월 기준 2,86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4% 하락하였으며, 이는 설날효과인 특별급여(-47.7%) 감소에 기인함.
-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3년 1월 상용임금총액은 5,022천 원으로 2012년 1월 대비 8.7% 하락하였으며, 이 역시 특별급여(-28.0%) 감소의 영향임.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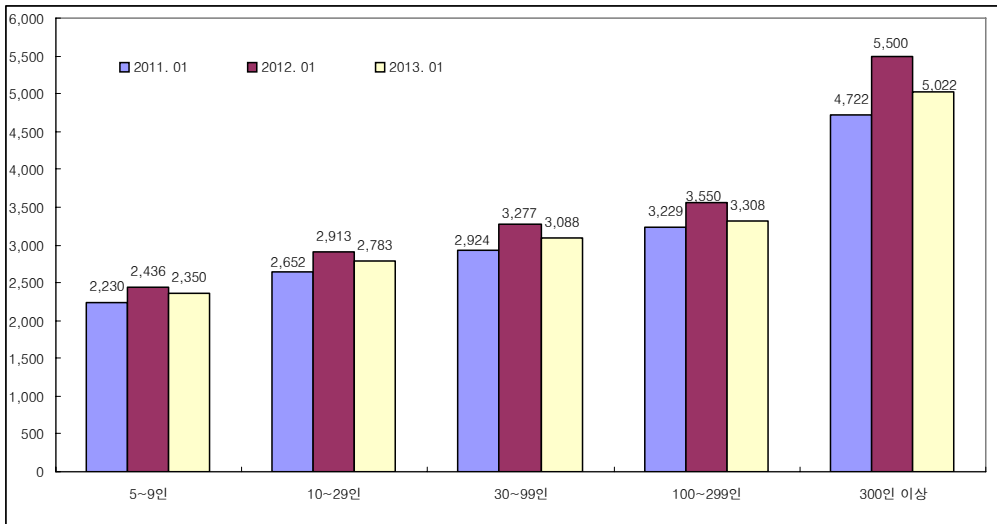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2013	
					1월	1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47 ( 6.4)	3,019 ( -0.9)	3,178 ( 5.3)	3,579 (13.2)	3,343 ( -6.6)
	정액급여	2,234 ( 4.5)	2,341 ( 4.8)	2,470 ( 5.5)	2,456 ( 6.4)	2,568 ( 4.6)
	초과급여	196 (12.2)	179 ( -8.4)	181 ( 1.0)	167 ( 1.6)	177 ( 5.9)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527 ( 5.8)	957 (38.8)	598 (-37.4)
	비상용임금총액	1,056 (-1.6)	1,215 ( 15.1)	1,293 ( 6.4)	1,341 (15.4)	1,449 ( 8.0)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99 ( 5.5)	2,675 ( -0.9)	2,834 ( 5.9)	3,033 ( 9.9)	2,869 ( -5.4)
	정액급여	2,082 ( 4.3)	2,204 ( 5.9)	2,333 ( 5.9)	2,316 ( 6.7)	2,420 ( 4.5)
	초과급여	176 (13.6)	150 (-14.5)	156 ( 3.5)	141 ( 0.7)	149 ( 5.3)
	특별급여	441 ( 8.4)	321 (-27.3)	345 ( 7.7)	576 (27.9)	301 (-47.7)
	비상용임금총액	1,059 (-1.6)	1,216 ( 14.8)	1,301 ( 7.0)	1,346 (16.6)	1,468 ( 9.0)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91 ( 9.1)	4,273 ( -0.4)	4,424 ( 3.5)	5,500 (16.5)	5,022 ( -8.7)
	정액급여	2,779 ( 5.2)	2,842 ( 2.3)	2,965 ( 4.3)	2,949 ( 3.5)	3,095 ( 5.0)
	초과급여	268 ( 9.6)	286 ( 6.7)	275 (-3.9)	257 (-0.3)	276 ( 7.2)
	특별급여	1,245 (18.7)	1,146 ( -8.0)	1,185 ( 3.4)	2,294 (42.2)	1,651 (-28.0)
	비상용임금총액	1,025 (-0.3)	1,208 ( 17.8)	1,209 ( 0.1)	1,280 ( 2.4)	1,231 ( -3.8)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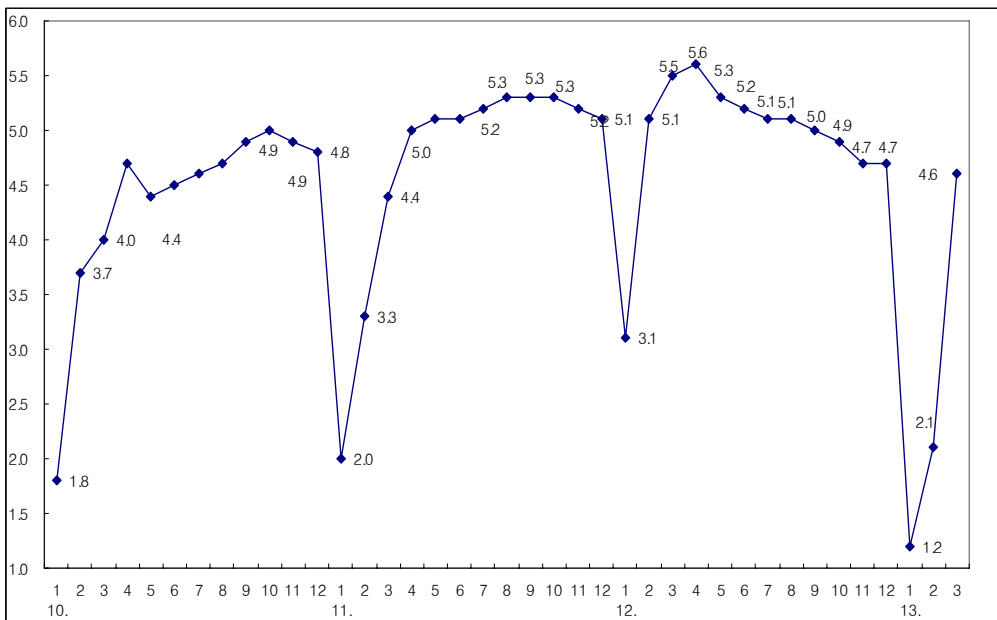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3월 협약임금 인상률 4.6%

- 2013년 3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6%로 2012년 3월 인상률(5.5%)에 비해 0.9%p 하락
- 2012년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전년 인상률(5.1%)에 비해 0.4%p 하락함.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3년 1월 근로시간 7.2% 증가

- 2013년 1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함.
- 2013년 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82.6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70.3시간)에 비해 12.3시간(7.2%) 증가함(표 9 참조).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2013	
				1월	1월
전체 근로시간	176.7( 0.3)	176.3(-0.2)	174.3(-1.1)	170.3(-4.6)	182.6( 7.2)
상용총근로시간	184.7( 0.2)	182.1(-1.4)	179.9(-1.2)	174.2(-5.3)	186.9( 7.3)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3(-0.6)	168.5( 0.1)	167.2(-0.8)	161.8(-5.4)	174.9( 8.1)
상용초과근로시간	16.4( 8.6)	13.6(-17.1)	12.8(-5.9)	12.3(-3.9)	12.1(-1.6)
비상용근로시간	115.4(-3.3)	122.5( 6.2)	122.3(-0.2)	128.3( 4.5)	139.8( 9.0)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1월 전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

○ 설날효과로 2013년 1월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3년 1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건설업(168.3시간, 10.4%), 교육서비스업(162.2시간, 1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0.9시간, 6.6%) 등 대체로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가 큼.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0	2011	2012	2013	
				1월	1월
전 산업	176.7( 0.3)	176.3(-0.2)	174.3(-1.1)	170.3(-4.6)	182.6( 7.2)
광업	188.1( 0.3)	186.9(-0.6)	185.3(-0.9)	180.8(-2.2)	193.1( 6.8)
제조업	192.1( 1.9)	190.6(-0.8)	186.4(-2.2)	179.9(-6.7)	194.4( 8.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6.9(-0.6)	177.1( 0.1)	175.5(-0.9)	173.0(-3.2)	177.0( 2.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2.9(-0.6)	186.2(-3.5)	184.8(-0.8)	179.4(-4.0)	190.9( 6.4)
건설업	146.1(-0.7)	153.9( 5.3)	152.5(-0.9)	152.4(-3.9)	168.3(10.4)
도매 및 소매업	177.2(-1.0)	175.1(-1.2)	174.5(-0.3)	169.7(-4.9)	183.2( 8.0)
운수업	184.6( 0.1)	181.6(-1.6)	181.7( 0.1)	179.1( 0.5)	183.5( 2.5)
숙박 및 음식점업	163.7(-0.4)	186.2(13.7)	186.6( 0.2)	184.5(-1.4)	185.0( 0.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6.2(-0.4)	164.5(-1.0)	163.9(-0.4)	158.1(-5.7)	173.1( 9.5)
금융 및 보험업	165.3(-0.9)	163.6(-1.0)	163.4(-0.1)	159.6(-4.8)	174.8( 9.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0.4(-0.8)	194.2(-3.1)	193.4(-0.4)	192.4(-4.6)	201.1( 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3(-0.8)	166.2(-0.1)	165.3(-0.5)	160.5(-5.1)	172.5( 7.5)
사업서비스업	180.1( 0.6)	172.1(-4.4)	173.1( 0.6)	170.3( 0.0)	180.8( 6.2)
교육서비스업	149.9(-2.5)	152.9( 2.0)	151.1(-1.2)	147.5(-2.5)	162.2(1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5( 0.1)	173.5(-1.7)	174.8( 0.7)	169.7(-4.1)	180.9( 6.6)
여가관련서비스업	158.7(-1.8)	157.1(-1.0)	158.1( 0.6)	148.4(-4.5)	163.3(10.0)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9(-0.9)	173.6(-0.2)	168.9(-2.7)	164.4(-7.3)	178.3( 8.5)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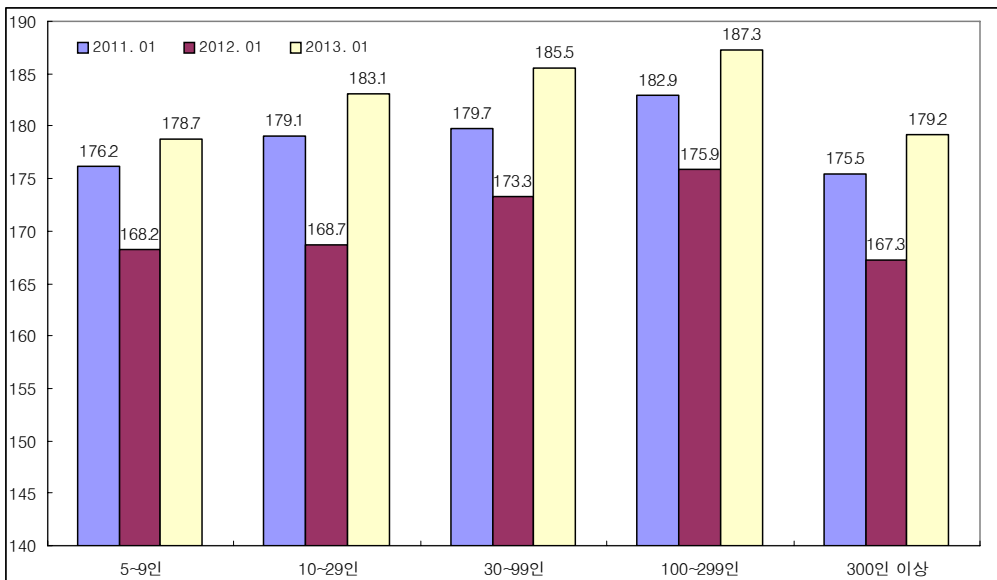
- 2013년 1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201.1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62.2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3년 1월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3년 1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2%,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3.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8.5%,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5.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0%,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7.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5%,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함(그림 11 참조).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진주의료원 노사, 폐업 유보 합의

- 진주의료원 노사는 4월 23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기로 합의함.
  -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1개월 간 유보,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 재개, △철탑농성 해제 등의 내용에 합의함.
  - 이에 지난 16일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진주의료원 노조 관계자 2명은 고공농성을 중단함.
  - 이번 합의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폐업 철회는 아니지만 이를 일단 유보하고 대화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함.
  - 홍준표 경남지사는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되는 노사대화는 폐업과 정상화를 포함한 모든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설명함.
  - 진주의료원지키기 경남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노사대화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려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 등이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그간 진주의료원 노사는 폐업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 진주의료원은 4월 3일 휴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함.
  - 경남도는 9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법인해산을 명시하는 ‘경남도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함.
  - 경남도는 9일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시행공고(긴급)’를 냄. 15일 접수 마감 결과 진주의료원 직원 189명 중 명예퇴직 27명, 조기퇴직 38명 등 65명이 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힘.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의회를 방문함.
  - 진주의료원 노사는 11일 사태해결을 위한 노사간 대화를 시작함. 그러나 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날 회의에서 ‘폐업방침’과 ‘경영정상화’를 두고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알려짐.
  -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경남도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
  -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가 무산됨.

- 이와 관련해 진주의료원 직원들과 시민들은 폐업에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가짐.
  -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6개 단체는 “만성적자가 폐업의 원인이 된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폐업 결정 유보를 요구함.

◆ **현대자동차 노사, 주말특근을 둘러싼 논란**

- 현대자동차 노사는 주말근무 형식과 임금문제에 관해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1인당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 심야근무도 감소했는데 수당을 과거에 1인당 14시간 근무할 때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은 무리가 있다”며 “특근 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반면 현대자동차 노조 측은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라인가동 속도가 빨라지고 노동강도가 높아진 만큼 할증된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함.
  - 종전 현대자동차 주말특근은 ‘0+14’형태로 1개조가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운영되었으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이후 회사 측은 평일과 동일하게 ‘8+9’형태 2개조로 변경하고자 함.
-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사는 16일 근로형태변경추진위원회에서 휴일 특근수당과 근무조건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 회사 측은 종전의 평균 39만 5,965원의 특근수당에서 3만 원 인상된 총 42만 5,965원을 새로운 지급안으로 내놓음.
  - 그러나 노조 측은 “노동시간은 기존보다 5~6시간 줄어들지만 노동강도가 높아져 그에 맞는 임금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1·2차 협력업체 대표단은 “특근 중단으로 협력회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말특근 재개를 촉구함.

◆ **신세계 이마트, 9,100명 정규직 채용**

- 신세계 이마트는 4월 1일 전국 146개 매장의 상품진열 도급 사원 9,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함.
  - 이들은 신선식품, 일반영업, 지원업무, 가정간편식(HMR) 등 네 가지 전문영역에서 근무하게 됨.

- 아울러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3월 25일 의류전문판매사원 1,821명을 5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밝힘.
-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 3월 31일 신선·조리식품 부문 전문직 직원 1,6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함.
-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4일 노조활동 등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짐.
  - 이번 합의안은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및 원상회복, △직원사찰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행합의서 체결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기존에 노사협의회가 있지만 별도의 노조 설립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함.
  - 이에 민주노총은 신세계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함.
  - 한편 고용노동부는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노조설립 방해조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세계 이마트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직원사찰, 불법파견 등 여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함.
- 한편 지난 3월 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3월 24일 조직을 설립하고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짐.
  -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의 산하조직으로 창립멤버는 25명임.

◆ **고용노동부, 산재사고 관련 감독관책임전담제 도입**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7일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집중관리하는 ‘감독관책임전담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 ‘감독관책임전담제’는 집중관리 사업장을 지정하고 감독관에게 전담시켜 생산시설 및 화학물질 사용과 시설노후 현황, 안전보건관리 활동, 사내협력업체 현황 등을 집중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민주노총 관계자는 “감독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문제 사업장을 전담시킨다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의 다른 재해는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력에 과부하가 걸린다면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인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 산재예방·대응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해 관리 소홀이 적발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힘.
- 아울러 4월 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함.
  - 특별근로감독 결과,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002건이 적발됐다고 밝힘.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반 44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함.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체 대다수가 공정보수공사를 할 때 영세업체에 도급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대림산업 관계자는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함.
- 한편 10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안경렌즈 제조업체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함.
  - 이 외에도 지난달 충북 청주시 SK 하이닉스 염소가스 누출, 경북 구미시 LG실트론 불산 혼합액 누출,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열코크스 유출 등 화학물질 관련사고가 있었음.
  -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11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폭발이나 가스누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공장에 대해 반드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제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함.

◆ 기아자동차, 신규채용 특혜 논란

-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공장지회는 12일 기아자동차 노사가 “생산직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한 명에 한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힘.
  - 기아자동차 노사는 1차 시험에서 장기근속자 등의 자녀를 25%로 할당하고 2차 시험에서 가산점수 5%를 부여하는 데 합의함. 이번 합의는 현재 진행중인 광주공장의 생산직 직원 채용 때부터 적용됨.
  - 노조 측은 “장기 근무한 조합원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해 신규채용 때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의미”라며 “노사 안정과 조합원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함.

- 이에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아자동차 노조는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회균등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회사가 추진하는 신규 직원 채용 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라”며 농성을 벌여 왔음.
  - 한 지역법조계 관계자는 “고임금직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가산점 제도를 채용공고에 공시했다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한편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 김 모씨는 16일 광주공장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함.
-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분신사태의 책임은 기아자동차 측에 있다”며 “신규 직원 채용 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라”고 촉구함.
  - 기아자동차 노사는 19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시작함.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에 있어 일차적인 관문은 원청인 회사 측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참여가 이루어졌으니 하나하나 풀어낼 것”이라고 말함.

◆ **중구청, 쌍용자동차 농성장 철거**

- 중구청은 4월 4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을 철거함.
- 중구청 관계자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인도를 장기간 불법 점용했다”며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철거에 나섰다”고 설명함. 이들은 천막 철거 후 화단을 조성함.
  - 이에 쌍용자동차 노조 관계자는 “이번 철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집회 방해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힘. 쌍용자동차 농성자들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 농성장을 다시 만들고 시위를 지속하고 있음.
- 문화재청과 중구청은 17일 대한문 앞 펜스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함.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함.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됨.
  - 쌍용자동차 노조 관계자는 “중구청에 항의하는 농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함.

**KLI**

(박지은,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